

주목! 이사람



박흥목 목포시장은 24일 오후 5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유달정기장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다.



강진원 강진군은 24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확대주간업무보고회를 주관한다.



전동평 영암군은 24일 오후 2시 세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리는 기업맞춤교육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다.

신안 올바로시스템 교육

신안군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위한 폐기물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보건소 다목적강당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공사의 폐기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신안군은 향후 지속적인 폐기물 담당자 교육과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도현 환경시설담당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폐기물처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폐기물처리 투명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집·운반·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목포 010-3272-2765
011-632-0323
신안 010-4627-1472
영암 010-4624-8409
진도 010-3624-4777
완도 010-5619-7020
해남 010-8181-2627
강진 010-6646-1241

해남 특산물 무화과 가공식품 생산 '박차'

5억 투입 생산시설 신축·생산장비 지원
연 38억 매출 귀농인 중심 재배면적 증가

지난 2013년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작업장, 냉동·냉장고를 신축했으며, 지난해 전라남도지사 해남군 민생현장 방문시 건의를 통해 올해 2억2,000만원(자담 9%)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선별장, 건조시설 및 기계장비 등을 갖추게 됐다.

또 화원면의 청무화과 가공시설은 무화과 농민회사법인에 3억원(자담 50%)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공공장 신축과 기계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해남군의 무화과 재배면적은 시설무화과 17ha, 청무화과는 9ha를 비롯해 일반 노

지재배까지 총 69ha 면적에서 연간 38억여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재배농가의 전업화와 귀농인을 중심으로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화과는 최근 무화과 재배의 전업화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장기보관의 어려움 등으로 가공식품 개발이 모색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군은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를 가공식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 강진 마량서 개최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가 오는 31일 오후 1시30분 강진군 마량면 마량항 중앙파제 일원에서 열린다.

매년 5월 31일에 개최되는 바다의 날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 지난 1996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바다의 날 행사는 2017 강진 방문의 해와 연계해 평일인 수요일에도 마량 놀토수산시장을 운영하는 만큼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립국악단의 식전행사 공연으로 시작되는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한 국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 지난 1996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강진=한태선 기자



진도군은 최근 진도읍 포서리 들녘에서 벼 무논점파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

진도 벼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무논점파 현장 연시회 농민들 관심 높아

진도군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벼 무논점파 등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에 나섰다.

진도군은 최근 진도읍 포서리 들녘에서 농업인 및 관계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무논점파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무논점파 재배 확산 및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 보급, 농자재 전시·소개와 농업인-농업 관련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벼 무논점파는 씨매질 후 물이 없는 상태의 논에 싹 틔운 벼씨를 5~7알씩 모내기하고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점파 파종하는 재배기술이다.

파종 시연을 지켜본 농민들은 큰 관심

을 보였다. 이 기술은 못자리 설치 등 벼 육묘과정이 생략되는 못자리 없는 벼 재배법으로 관행 모내기보다 노동력과 생산비, 경영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 기존의 직파재배에서 불거졌던 발아 불균일과 잡초발생, 벼 쓰러짐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된 기술로 수확성이 기계 모내기와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시장 개방과 고령화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농촌에 무논점파 기술 등 신기술 확대·보급을 추진 중이다"며 "임대용 파종기계 확보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 군민소득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

"신안 오리마을에 양심가게 있어요"

운영 한달...사라진 물품 없고 주민 소통역할

신안군의 섬마을에 아름다운 양심가게가 생겨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흑산면의 외딴 도서 중 약 70여 가구에 120여명이 거주하는 오리 마을에 최근 양심가게가 문을 열었다.

오리 마을은 주민들의 70% 이상이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고령화로 인해 힘든 여흥 일을 할 수가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각종 생필품을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 동안 오리에는 별다른 가게가 없어 생필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흑산도로 20여분운반 배를 타고가 필요한 물건을 구매야 하는 등 거동이 힘든 노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오리를 경유하는 도선이 흑산도에 머무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생필품을 사러 흑산도로 와서 돌아가기 위해 도선으로 옮겨 타는 것도 노인들에게는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최근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리 청년회가 나섰다.

오리 청년회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실시한 것으로 1,000만원을 마련해 양심가



신안군 흑산면 오리마을에 문을 연 양심가게.

게로 이용할 마을 화관을 리모델링하고 진열에 필요한 각종 선반 및 물품 등을 구입했다.

양심가게는 청년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흑산도에서 사서 진열해 놓으면 마을 노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금액을 놓고 가는 방법으로 운영 중이다.

김근중 청년회장은 "양심 가게를 운영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으나 사라진 물

건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물건 가격보다 많은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태 흑산면장은 "양심가게를 통해 주민들 간의 소통이 더 잘되고 이웃의 어려움을 더 살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갈수록 삭막해져 가는 세상에서 양심가게가 믿음과 인정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 찾은 상춘객 전년 보다 20% 늘어

황금연휴·세월호추모객·콘텐츠 개발 복합효과

목포를 찾은 상춘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봄 여행주간인 4월 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0만명의 관광객이 목포를 방문했으며, 이는 예년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목포시는 관광객 대폭 증가의 이유에 대해 징검다리 황금연휴로 여행 분위기가 고조됐을 뿐 아니라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시

항을 찾은 추모객이 주요 관광지도 방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목원동 벼파 마을, 목원동 골목길 투어를 통한 역사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 점도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했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심해 잠수정 가상현실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박흥목 목포시장은 "올해 봄 여행주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전국의 관광객이 몰렸다"며 "앞으로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바가지 요금, 불친절 근절 등 관광수용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준공되는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 힐링랜드 등 관광콘텐츠가 확충되면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처된 이후 많은 인원의 추모객이 방문하면서 목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목포=박승경 기자

Advertisement for P&J Wedding Hall featuring a large building image, the P&J logo, and text: 'Wedding Hall', '고객을 배려한 세련된 인테리어 결혼식 / 각종 연회 / 컨벤션웨딩홀 당신을 초대합니다.', 'http://www.pnjwedding.kr 피앤제이 웨딩홀 T: 361-6677 상무지구 태양열 주차장 뒷편'